듣는 강론

가톨릭마산

대림 제3주일
자선 주일
2023년 12월 17일
제2596호

어둠 속의 빛 © 사진 / 양병주 분도

주일 전례

제 1 독 서 이사 61,1-2ㄱ.10-11

화 답 송 ◎ **내 영혼이 내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네.**

제 2 독 서 1테살 5,16-24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

복 음 요한 1,6-8.19-28

영 성 체 송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하여라. 힘을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우리 하느님이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발행 천주교 마산교구 **편집** 사무처 | 055·249·7072 media2@cathms.or.kr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죽헌로 72 **홈페이지** http://cathms.kr **유튜브채널** 천주교마산교구

최훈 타대오 **신부**
교구 사회복지국장

자선 - 그리스도를 증언함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굶주리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외에 다양한 어려움의 처지에 놓였을 때, 그들과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마태 25,31-46).”

자선은 다른 사람에게,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선한 마음으로 도움을 주는 행위라고 합니다. 이맘때면 길거리에는 구세군의 자선냄비가 걸리고 사랑의 열매 온도탑이 세워지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자고 합니다. 왜일까 생각해 봅니다. 연말에는 어려운 분들이 더 힘드니까, 한 해를 보람있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눔을 하기 위해서… 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 사회의 선한 마음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선한 마음은 신앙인이건 신앙인이 아니건 다 나름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선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만이라면 굳이 성당을 나오지 않아도 아버지 하느님께서는 인간이라는 당신의 모상 안에 선한 마음을 갖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자선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굶주리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외에 다양한 어려움의 처지에 놓였을 때, 그들과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마태 25,31-46). 이 만남은 연말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 년 열두 달, 일상생활 속에서 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신자들의 개인적인 자선활동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여러 단체들을 통해서 이러한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당 사목회 조직으로는 사회복지분과 활동, 신심단체로는 레지오, 빈첸시오회, 교정사목위원회, 병원사목위원회, 이주사목위원회 등을 통해 여러분이 자선(caritas)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진이나 화재, 수해가 일어났을 때, 2차 헌금을 통해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일 년 내내 자선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선한 마음을 가진 분들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묵묵히 신심단체 회합을 하고 자선활동을 지속해 오시는 신자분들의 오랜 손길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세례자 요한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러한 사도직 활동들에 대해 알지 못했던 신자분들도 교회 안에 있는 사도직 단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메마른 광야와 같은 오늘의 사회 안에서 자선 활동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처지에 따라 후원 회원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고, 활동 회원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교회의 사도직 단체에 초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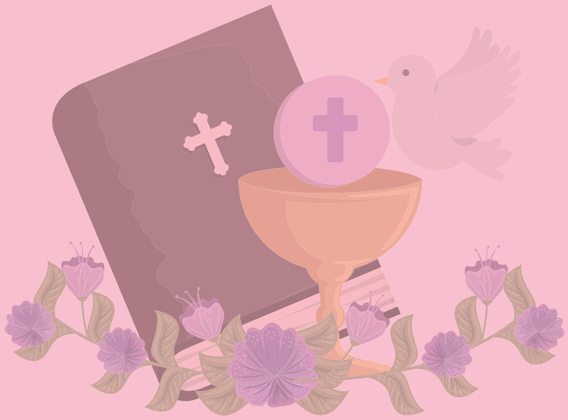
"말씀은 너희에게 가까이 있다. 너희 입과 마음에 있다."(로마 10,8)

▲〈제12회 성경 잔치 본당별 성경 필사〉

오늘은 대림 3주일로 성탄절이 가까이 왔다. 가톨릭 신자는 대림 1주부터 이미 새해를 맞이하였고, 삶의 자리에 아기 예수님께서 오시길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다.

하늘 높은 곳에 거처하셔야 할 하느님께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시어 그 사랑을 조건 없이 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예수님 안에서 보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그대로 살라'고 말씀하신다. 지금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처럼 살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님께서 친히 "나의 말을 듣고 실천하는 이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이며 그 집은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았다."(마태 7,24-25)고 가르쳐 주신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지난 11월 19일 마산교구청에서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루카 6,36)라는 주제로 열렸던 제12회 성경 잔치에서 찾을 수 있었다.

말씀을 듣는 길 중 하나는 성경 필사이다. 성경을 1~2번도 아닌 7번이나 완필하신 형제님은 반성과 회개와 변화로 이끄시는 주님을 만나면서 진정한 마음의 양식으로 배부름을 느꼈다고 고백한다. 사고로 다리를 다쳐 큰 수술을 하고 두 발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막막한 상황에서 예전에 포기했던 성경 필사를 주님께 의탁하는 심정으로 시작했다는 형제님도 있었다. 그런데 성경 필사를 하면 할수록 "나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한 적이 있나? 누군가를 위해 살아본 적이 있나?"라는 물음에 그렇게 살지 못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 묵상하는 시간이 길어졌다고 한다. 이제는 남을 위해 필요한 사람이 되어 세상에 빛을 밝히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아시다시피 성경 필사가 쉬운 일은 아니다. 필사자들은 처음에는 "내가 과연 완필할 수 있을까?" 하고 겁부터 지레 먹었고, 필사하다 보면 목, 팔, 어깨의 뻣뻣함, 침침해지는 눈이 뒤따른다며 어려움도 호소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줄을 쓰고 나면 다음 말씀이 궁금해져서 자꾸 쓰게 되고 하루라도 한 줄이라도 안 쓰면 마치 아무 일도 안 한 것처럼 허무함을 느꼈다고 한다. 마음이 아파 힘들어서 필사를 멈추고 있을 때조차 하느님께서 "너 어디에 있느냐?"고 찾으며 성경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자매님도 있다. 그냥 하느님 앞에 머물러서 말씀을 필사하는 그 시간이 참으로 행복과 축복으로 충만한 시간이었다고 한다. 필사를 마치고 나면 한결같이 모두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하며 감사와 찬양의 말을 잊지 않는다.



교구 성경사목부에서는 성경의 생활화를 목표로 2023년에는 '공관복음 은총 성경쓰기'를 진행하였고 대림절부터 2024년에는 '사도행전, 바오로 서간 은총 성경쓰기'를 시작한다. 또한 본성경공부반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알아야 할 생명의 말씀에도 온전히 머물러 보자.

〈예수님의 탄생〉 정지인 레지나(칠암동본당)

2023년 제40회 자선 주일(12월 17일) 담화문

+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자선 주일'입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1984년부터 대림 제3주일을 '자선 주일'로 지내도록 정했습니다. 자선은 사랑의 한 가지 행위입니다.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신 당신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신앙인들로 하여금 서로 돕기를 바라시며, 이웃 사랑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순 시기마다 그리스도 신앙인들이 기도와 자선과 단식을 훈련하도록 전례력을 마련하였습니다. 기도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그리고 단식은 자신과의 관계를 위한 것이라면, 자선은 이웃과의 관계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들입니다. 하느님께서도 그들을 좋아하시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의 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느님께서도 그들을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가끔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의 모습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우리들의 자선을 생각하게 하는 김요한 시인의 시입니다.

"많은 재산과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이 죽었습니다.
천사가 그의 영혼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승으로 떠납니다. 갖고 가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그러자 그는 대뜸 말했습니다.
'돈을 가져가겠습니다.'
천사가 '그것은 안 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럼 권력을 갖고 가겠습니다.'
그것도 안 된다고 하자,
'그렇다면 아름다운 여자라도 데려가고 싶습니다.'
그것도 안 된다고 하자,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그럼 내 몸에 있는 보석이라도 가져가게 해 주십시오.'
그것도 안 된다고 하자, 그는 화가 나서 물었습니다.
'그럼 대체 무엇을 갖고 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천사가 대답하였습니다.
'세상에 있을 때 남에게 베풀어 준 것은 모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선은 믿음과 더불어 천국에 갈 수 있는 한 가지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35-40)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자선 주일을 맞이하여 많은 것을 베풀어 하느님 나라에 많은 것을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자선을 베풀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느님의 은총으로 기쁨과 평화를 기도합니다.

2023년 12월 17일 자선 주일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조규만 주교

교구 휴학 신학생 피정

교구 휴학 신학생 피정이 성소국(국장: 최문성 마르코 신부) 주관으로 12월 5일부터 6일까지 마산가톨릭교육관에서 실시되었다. 피정은 성소국장 신부의 강의와 개인 기도, 체험 발표 및 나눔으로 진행되었다. 군대와 외국, 직장 등 여러 장소에서 휴학 기간을 보낸 신학생들은 각자의 체험담을 나누고, 서로의 고충에 공감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학생들은 이번 피정을 통하여 기도와 묵상 가운데 자신의 삶과 신앙을 돌이켜보고 성소자로서의 마음가짐을 재정비할 수 있었다.

마산성요셉성당

민창홍 요한 시인/ 가톨릭문인회

성지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매일같이 바라보는 성요셉성당에 대하여 우연한 기회에 문학적으로 승화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생겼다. 수업이 없는 시간에 들러 기도하면서 시적 형상화에 노력하였다. 참으로 어려웠다. 인물도 아니고 건축물에 대하여 노래한다는 것이 막막했다. 그래서 이야기가 있는 서사시 형태로 접근해 보기로 계획하고 당시 마산포성당의 설립 초기부터 석조성당(현 성요셉성당) 축성과 100주년 행사를 할 때까지의 완월동성당의 역사를 공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막상 시작하니 겁이 나서 쉽게 작업이 진행되지 않았다. 문화재 등록 당시 명칭인 〈마산성요셉성당〉을 제목으로 정하고 1900년 설립 당시부터 가톨릭교육관이 완공되는 때까지를 역사를 중심으로 1번부터 40번까지 구성하였다. 여기에는 교구 40주년의 의미도 포함하였다. 쓰면서 기도하면서 내린 결론은 시작詩作의 성공 여부보다는 신앙인으로서 삶을 돌아보고 하느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에 의미를 두기로 하였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흐르는데 시 작업은 미진하였다.

시 1번에서는 말씀이 들립니다/ 먼 길 돌아온 걸음이 멈춰지고/ 당신이 이끄심으로 사랑을 배웁니다/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중간에는 창원지역의 전교와 신설되는 성당과 교구 태동부터 현재까지를 노래하였다. 마지막 40번에서는 학생들과 성요셉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하며 교목 신부님의 강론을 듣는 이야기로 마무리하였다.

완성을 한 후에 돌아보니 어쭙잖은 시가 되었다. 그렇지만 해설을 맡아주신 강희근 교수님께서 "성요셉성당이 흘러온 역사를 형상화한 장시長詩다. 그렇다고 성당의 역사에 국한된 세계를 보이는 것도 아니다. 교회사 곁에 있는 시대사적 흐름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이고 구내에 있는 성지여중고의 역사를 포함하고 있다." 또 "서사형 장시의 한 모형을 만든 셈이고 서정과 서술과 기도가 하나로 어울리는 신앙적 태도를 보여 비점批點을 쳐 주고자 한다."라고 격려해 주셨다.

시집에는 신앙생활과 관련한 시도 함께 묶으며 하느님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며 제1부 〈마산성요셉성당〉, 제2부 〈오늘은 기쁜 날〉, 제3부 〈내 삶의 중심에〉로 편성하였다. 발간 당시에는 교구 역사에 맞추어 제1부를 수정 보완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게을러진 탓에 엄두를 못 내고 있다. 어떤 이는 미완으로 남겨두어야 한다고도 한다.

문학의 길을 걷고 있지만 내가 하는 일은 너무 미약하다. 창작활동과 신앙생활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갑자기 영감이 떠오를 때 이것은 내가 한 생각인가 하고 반문할 때가 있다. 돌아보면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는 작고 미약하다. 다만 하느님을 노래한 마음이 오묘한 섭리가 만들어 온 역사의 한 조각 퍼즐처럼 남기를 기도한다.

가음동본당 임시 성전 축복미사

가음동본당(주임: 이창섭 아우구스티노 신부)은 12월 3일 교구장 서리 신은근 바오로 신부의 주례로 임시 성전 축복미사를 봉헌하였다. 이날 미사에는 신정목 우르바노 신부(교구 성사전담)도 함께하였다. 신은근 신부는 "지금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가음 공동체에 보여준 전 신자분의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다소 불편하고 어려움이 많겠지만 항상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2년 뒤에는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입니다."라며 본당 신자들을 격려하였다.

교구장 서리 동정

교구 신학생 방학인사
일시: 12월 18일(월) 19: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교구/본당

신학생 동계연수 및 교구장 서리 방학인사
일시: 12월 18일(월)~20일(수) 2박 3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교구 성경교육봉사자 집중교육
일시: 12월 19일(화)~21일(목) 3일간/ 장소: 교구청

교구 성경 교육봉사자 모집
지역: 마산, 창원, 진주, 통영, 거제
대상: 말씀 봉사가 가능하신 분
신청: 12월 23일(토)까지(면담 후 봉사자 교육)
문의: 성경사목부 055·249·7026, 010·3567·4810

위원회/기관/단체

교구 체나콜로 다락방 12월 기도모임
일시: 12월 18일(월) 13:00~15:00
장소: 교구청 2층 성당/ 준비물: 메시지 책, 미사 준비
버스시간표: 가음자이(10:50)–반송(11:00)–시티(11:06)–현대주유소(11:16)–구 교구청(11:40)–교구청(12:10)
문의: 회장 010·9399·5454

221차 ME주말 안내
일시: 2024년 1월 26일(금)~28일(주일) 2박 3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대상: 혼인한 지 3년 이상 된 부부
신청: 전화 및 문자로 접수(문자발송–부부 이름과 연락처, 본당 기재)
문의: 배길우(바오로) 010·2057·3319
안은정(바울리나) 010·4598·7530

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외국인공동체미사 시간 변경

영어 미사
창원: 주일 15:00/ 창원이주민센터
진주: 주일 12:30/ 칠암동성당
거제: 토요일 19:30/ 장평성당

베트남어 미사
창원: 주일 17:30/ 명서동성당
진주: 주일 12:30/ 칠암동성당
통영: 2, 4주(토) 20:30/ 태평동성당
거제: 1, 3주(토) 19:30/ 국산공소

동티모르 미사
통영: 3주(토) 20:30/ 태평동성당
문의: 창원이주민센터 055·275·8203

기 타

예수회센터 겨울방학 특강 동영상 녹화 강좌(24년 1월 개강)
내용: · 월요 피정(무료)–관상과 함께하는 묵주기도와 미사(이근상 신부)
· 1801년 모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신유박해를 바라보는 여섯가지 시선(소진형 박사)
· 구약성경 아카데미–귀환시대(주원준 박사)
· 이미지를 이용한 기도 방법(배영길 신부)
· 수도사들의 화가 수르바란의 미술로 살펴보는 가톨릭 영성과 신심(김현직 신부)
· 요한 신부와 함께 읽는 요한복음(김민 신부)
· 영성과 심리의 통합 세 번째길–방어기제와 감정(최지원 수녀)
▶각 6주 과정/ E–메일과 문자로 동영상 발송
신청 및 문의: 02·3276·7733, http://center.jesuits.kr

젊은이를 위한 꽃동네 성령피정(2박 3일)
일시: 2024년 1월 5일(금) 13:00~7일(주일) 16:00
장소: 꽃동네 사랑의 연수원 중강당
대상: 중·고·대학·미혼 젊은이/ 회비: 10만 원
문의: 010·5490·5345 (myungkkot@daum.net)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이시돌 목장내 성지에서 쉼과 성지순례
계절마다 아름다운 제주여행과 자연순례
일시–눈꽃산행: 24년 1월 6일~8일/ 24년 1월 12일~14일/ 24년 1월 19일~21일/ 24년 1월 27일~29일/ 24년 2월 3일~5일/ 24년 2월 14일~16일/ 24년 2월 27일~29일
대상: 개인, 가족, 일행, 소규모 단체
▶2024년 일정은 아래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문의 및 접수: 02·773·1455, 064·796·4182

사파동본당 통합2기 제5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협의회장: 신병섭(치릴로)
사목협의회부회장(남성): 정승규(도미니코 사비오)
사목협의회부회장(여성): 김선재(레오니아)
총무분과위원장: 전용수(라우렌시오)
재경분과위원장: 도재만(안드레아)
지역분과위원장: 길영숙(엘리사벳)
전례분과위원장: 정승은(도미니카)
교육분과위원장: 이미경(안나)
사회복지분과위원장: 여미영(블란디나)
선교분과위원장: 임경삼(베로니카)
시설관리분과위원장: 임창원(프란치스코)
홍보분과위원장: 이은미(소화데레사)
은총분과위원장: 김초애(루시아)
청소년분과위원장: 하승철(대건 안드레아)

하대동본당 제18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협의회장: 강윤수(라우렌시오)
사목협의회부회장(남성): 김재영(빠뜨리시오)
사목협의회부회장(여성): 황영란(수산나)
총무·기획분과위원장: 박경운(프란치스코)
전례분과위원장: 정명주(플로라)
복음화분과위원장: 허미경(글라라)
청소년분과위원장: 변혜연(율리아)
구역분과위원장: 장미자(마리아)
가정사목분과위원장: 전용민(레오)
신앙재교육분과위원장: 박태수(아론)
복지분과위원장: 이남선(이냐시오)
홍보분과위원장: 노재원(비오)
시설분과위원장: 이성원(요한)

사림동본당 제5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협의회장: 양종호(라이문도)
사목협의회부회장(남성): 이정태(사도요한)
사목협의회부회장(여성): 조을연(안나)
총무기획분과위원장: 김연숙(데레사)
재경분과위원장: 이상념(아녜스)
전례분과위원장: 박현재(이냐시오)
복음화분과위원장: 김임순(레지나)
구역분과위원장: 신금순(카타리나)
사회복지분과위원장: 정미자(율리안나)
어르신분과위원장: 공창섭(안드레아)
청소년분과위원장: 문성아(레아)
홍보분과위원장: 권혜정(비비안나)
가정사목분과위원장: 이병호(스테파노)
시설관리분과위원장: 김정구(프란치스코)
성경분과위원장: 정정자(루치아)

중앙동본당 제25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협의회장: 심요섭(요셉)
사목협의회부회장(남성): 이종호(아오스딩)
사목협의회부회장(여성): 박정순(안젤라)
총무분과위원장: 권용덕(바오로)
기획재경분과위원장: 박원식(요아킴)
교육분과위원장: 전덕숙(크레센시아)
전례분과위원장: 박순아(데레사)
구역분과위원장: 선명숙(마리아)
사회복지분과위원장: 김진희(마리아)
시설분과위원장: 노갑정(요셉)
홍보분과위원장: 화정순(카타리나)
복음화분과위원장: 하명숙(에딧다)
가정사목분과위원장: 오성실(카타리나)

성령기도회	일 시	장 소	주 제	강 사	미사 주례	문 의
교 구	12월 18일(월) 19:00	중앙동성당	2023년을 보내며	한현주 소피아(교구 찬미팀)	박혁호 미카엘 신부	010·5247·9900
청 년	매주 (수) 19:30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4층	성령기도회	19:30 미사 봉헌/ 20:00 기도회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 시	장 소	문 의	비 고
살레시오회	12월 17일(주일)	창원 젊음의 집	유명일 신부 010·6221·3520	대상: 중1~35세 이하 미혼 남성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12월 16일(토) 14:00	서울 개화동 수도원	010·3800·1579/ vocationoh@daum.net	보건 및 복지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

제주 3박 4일/ 전국 167곳 성지순례
제주–38만원/ 전국 2박 3일–30만원
베트남·마카오 성지순례 3박 5일 115만원
북해도 나가사키 아키타 3박 4일 115만원
마르코 투어 010–4239–1929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무화과잼, 귤잼, 포토잼 410g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 수녀원 직영 쇼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 010–2652–0706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10–6299–1137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0–3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가톨릭 우리농 직매장
유기농산물 · 유기농식품 전문점
창원시 중동중앙로 47 어반브리스 상가 1층
055 · 266 · 7010

미카엘 여행사 성지순례
■국내 성지순례 모집
제주도(추자도) 매주 (월) 출발
2024년 2월 15일(목)~18일(주일) 부산·마산교구 4일
■해외 성지순례 모집
2024년 1월 29일(월)~2월 2일(금) 하노이 하롱베이 5일
미카엘여행사 010.8650.9690

대성의전 경남장묘컨설팅
산소 이장·무연고 처리
010–4848–9944
마산회원구 회성남 18길 2, 1층(회성동)
김종운(클레멘스)

보고, 듣고, 느끼는 공소 순례 30

이화숙 바오로(함안본당 구읍공소 회장)

공소 순례 1,000번째 방문자를 맞으며…

구읍공소 주일미사 중

구읍공소 성모의 밤

올해 교구 공소 순례 계획에 따라 우리 공소에도 많은 신자들이 순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순례 방문자 수가 천명에 가까워져 해당되는 순례자는 어떤 분일까? 그리고 어떻게 환영할 것인지 공소 봉사자들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10월 28일 토요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공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공소 마당에는 양덕동본당 '티 없으신 어머니 Pr.'(단장: 한갑선 젬마) 단장님과 7명의 단원들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오늘 자매님들이 저희 공소 순례자로 1,000번째입니다." 하며 간단한 공소 소개와 기념사진 촬영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 만났지만 이분들의 기뻐하며 웃는 얼굴 속에서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 사람들이다."(루카 8,21)는 주님의 말씀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1,000번째로 방문한 양덕동본당 '티 없으신 어머니 Pr.' 단원 중 강정자 베네딕다 자매님은 초대 공소 총무 강점도 요셉의 자녀로 우리 공소에서 61년도에 세례(당시 12세)를 받고, 71년도에는 공소 성전에서 혼배미사를 하였습니다. 결혼 후 타 지역으로 교적을 옮겨 반세기가 훌쩍 지나 이번에 공소 순례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기억하는 과거의 공소 모습은 없지만, 지난 추억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구읍공소는 함안본당 소속으로 함안면 복촌리(성산로5)에 위치해 있습니다. 1952년 김동언 신부 시절 공소 공동체로 시작하여 1959년 제찬규 신부 때에 공소 성전을 신축 봉헌하였습니다. 지역사회의 발전에 따라 주변 도로의 확장으로 성전 건물과 종탑이 편입, 철거되었습니다. 현재는 가 건물의 성전에서 배진구 신부의 주례로 매 주일 오전 10시 30분 미사를 20여 명의 교우들이 함께 봉헌하고 있습니다. 올해 75년의 긴 역사를 지닌 공소 공동체입니다.

현재도 공소 공동체 봉사자로 70년의 세월동안 공소를 지키고 계신 8명의 어르신 모습을 보며 앞으로 우리는 공소를 어떻게 가꾸어 갈 것인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먼 훗날 이 공소에서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될지? 이런저런 생각 속에서 주님께 간절히 청해 봅니다. "주님! 항상 기쁨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게 해 주십사" 하고…

보고, 듣고, 느끼는 공소 순례 31

김분필 엘라(반송본당)

우리는 구역장님의 배려와 관심으로 공소 순례를 시작하였습니다. 구역장, 김옥수 젬마, 김정숙 마르타, 민병구 안나, 강효연 유스티나와 함께 순례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순례를 하면서 공소의 역사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또 많은 것을 깨닫고 느끼고, 가슴 먹먹함이 느껴지는 공소가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공소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제 자신이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공소를 지켜온 신자 분들의 믿음과 예수님과 성모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공소를 지킬 수 있었을까? 생각하며, 그분들의 믿음이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저희들은 얼마나 편안하게 미사를 드리고 있는지 공소 신자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산교구에 공소가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습니다. 공소를 순례하면서 몇 군데가 유난히 생각나고 기억에 남았습니다. 먼저 가배공소입니다. 성모상이 훼손되고 문이 잠겨 밖에서 기도를 하고 왔지만 오랫동안 마음에 여운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의령본당 소속인 칠곡공소에 들어가니 한 자매님이 묵주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칠곡공소의 역사를 들려주셨고, 논밭을 기증하고 사용하던 집을 공소 건물로 사용하고 있고, 지금은 신자들이 줄어 의령성당 미사에 참례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지오 주 회합은 지금도 공소에서 이어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량공소는 아담하였으나, 역사가 오래된 공소였습니다. 1909년 하동 진교 냥포마을에서 입교한 김재관 마티아 형제님이 사량도로 이주해 보니 이미 그곳에는 이름도, 본명도 알 수 없는 노파 교우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박해를 피해 섬으로 숨어든 교우들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욕지공소는 아름답고, 깨끗한 십자가의 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공소 순례를 하면서 느낀 점은 어떤 공소는 열악하고, 어떤 공소는 본당 같았습니다. 저는 공소 순례에 참여하지 않는 신자들도 공소 환경개선을 위해 조금씩 도움을 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욕지공소 경당에서

마산교구 공소 순례를 하고, 순례 책을 접하면서 그 공소의 역사도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산모퉁이를 굽이굽이 돌아 안전하게 운전해 주신 반송본당 럭키 2구역장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참여해 주신 자매님들 순례하는 동안 행복했습니다. 5월 17일 푸른 계절에 순례를 시작하여 10월 30일 단풍이 물든 계절에 긴 순례 여정을 마쳤습니다. 가는 곳마다, 발걸음마다 함께해 주신 주님, 성모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상 속의 성당: 성 바오로 다민족 성당(St. Paul Multi-national Parish)

윤종두 요한 신부/ 교구 이주사목센터장

하늘나라에서 지상으로 이주해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의 시간에 나는 온전히 상상 속에서 스스로 명명한 '성 바오로 다민족 성당'의 구유에서 태어나실 예수님을 고대해 본다.

'상상'이라고 하는 이유는 언제 이것이 실현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신부가 성당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미사를 봉헌하는 상상을 한다고 웃어넘길 수 있다. 하지만, 나에게는 절실하고 간절한 상상이다.

가톨릭교회는 단순히 자선의 차원에서 불쌍하게(?) 보여지는 이주민들을 위한 보편 사회복지의 차원에서 이주민을 바라보지 않는다. 하느님 자신의 모상으로 만들어진 자녀들 모두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주'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살기 위해서 '이주'한 세상 곳곳의 이주민들의 적극적인 만남을 위해 '이주사목위원회'라는 기구를 설치하고, 이주민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 구원역사 속에서 억압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약속된 땅으로 이주하여 살기를 원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하느님의 뜻이 실현되는 공간을 우리교구에서는 공식적으로 '천주교 마산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창원이주민센터'라고 한다.

이런 의미에서 창원이주민센터는 단순히 외국인 노동자, 이주배경 결혼여성, 이주배경 자녀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공간으로 머물러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성사적기능을 하는 공간인 것이다. 비영리단체로 대한민국 정부에 등록되어 있고, 교구에서 운영하는 창원종합사회복지관과 건물을 공유하며 지내는 우리 센터는 법적으로 '종교적' '성사적'기능이 배제되어 있다. 그래서 매 주일 봉헌하는 미사도 '창원종합복지관 대강당'이라는 간판이 붙은 곳에서 거행된다. 성전이 아니라 '감실'도 모시지 못한다. 이 대강당의 수용인원은 접이식 의자로 놓아도 최대 100명 정도이다. 아직은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주민들의 '임시캠프'의 모양새로 성사가 거행된다.

그래서, 이주민센터장인 신부의 고대가 비영리단체인 센터뿐만 아니라 공적으로 인준된 '성당'의 설립이다. '좋은 소식: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먼 길을 이주하며 다니셨던 바오로 사도를 주보성인으로 모시는 다민족들의 다양한 언어로 미사가 거행되는 성전이 하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상상이 '성 바오로 다민족 성당'이라는 가상의 속인주의 교회가 나의 머릿속에서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단순히 집회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떠날지 모르는 이주민들의 성사생활이 안정될 수 있는 교회법적인 장치도 요구된다. 지역 교회의 교적에 등록되지 않은 이주민들의 세례, 견진, 혼인성사 등의 성사권을 보장해 줄 사목권이 주어진 성당이 필요한 것이다. 현행, 한국교회의 양업 시스템에서 영어를 제외한 다른 언어가 지원되지 않아 이들의 이름이 한국어로만 기입되어, 증명서가 발급 되어도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본인 확인이 되지 않아 견진 및 혼인성사를 하게 될 때 여러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양업 시스템의 테두리에서도 벗어나 있는 이주민들의 성사생활을 관리해 줄 수 있는 행정적 기능을 가질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이 없더라도 가상(?)의 성당이라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깨어 있어라! 그때와 시간은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올 한 해 이주민센터에서 일어난 몇몇의 사건들로 구체화되면서 나의 '성 바오로 다민족 성당'의 꿈은 여전히 유효한, 허황된 상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생겼다.

지난 4월에 연재된 '신앙심 깊은 동티모르 친구와 돈만 생각하는 사제'라는 제목의 칼럼 주인공이 커다란 수술을 마치고 치료가 종결되어 본국의 가족 품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 금의환향을 꿈꾸고 대한민국 땅을 밟은지 10여 년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간다. 금의환향이 아니라 하반신마비라는 장애에 휠체어를 타고 빈손으로 가족들 품으로 가게 된다. 한 줌의 재가 되어 가족에게 전달되었을 수도 있었던 2여 년간의 어마어마한 고통의 대림 시기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은 기다림'으로 자신이 원한 모습은 아니지만, 10여 년 동안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성장해 있을 아이를 품에 안고 입을 맞추고 숨결을 느낄 수 있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다. 그에게는 적어도 10년간의 어둠의 '대림'이라는 인고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리고 지난달 연재된 '띄어쓰기 잘 못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의 주인공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기형 심장을 교정하는데 16년이라는 대림의 시기를 보내야 했다. 그 고통스러운 16년의 대림 기간에 '희망을 잃지 않은 기다림'은 그 소녀에게 올해는 행복한 크리스마스로 보상된다. 16년의 기다림 끝에 4시간 남짓의 수술이 성탄의 기쁨을 가져다준 것이다.

10년과 16년의 대림이 기쁜 성탄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나의 상상 속의 '성 바오로 다민족 성당'도 '희망을 잃지 않은 기다림'이 언젠가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다가오리라 믿는다.

우리 모두의 '희망을 잃지 않은 기다림'은 우리가 바라는 모습은 아닐지라도 하느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반드시 실현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기를 모두에게 바란다.

※ 교구 이주사목위원회의 원고는 이번 호로 마칩니다.
그동안 집필해 주신 윤종두 신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